부처님 친견 · 정토왕생 안내

관무량수경 (中)

글쓴이

강동균

(동아대 철학과 교수)

경전 속의 禪 사상 35

극락 염원하며 아미타불에 귀의

觀은 실천의 뜻 '염불→보살행→견불'

중국에서는 4-5세기에 '관(觀)'이란 용어가 매우 많이 쓰였다. 그것은 '관불(觀佛)'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들이 연달아 번역되었기 때문이였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관미륵보살도솔천경(觀彌勒菩薩兜率天經)〉·〈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 등이 그것이다.

앞에서 '관(觀)'이라고 하는 말에는 '관견(觀見)'과 '관지(觀知)'의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말했다. '관견'이란, 극락 정토의 아름답고도 불가사의한 장엄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하며, '관지'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대 신심을 말한다. '관불(觀佛)'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하기로 한다. '관불(觀佛)'은 '염불(念佛)'과 '견불(見佛)'과 '신불(信佛)'의 뜻이 있다.

도작(道綽)이 저술한 〈안락집(安樂集)〉에서는 '관불(觀佛)'과 '염불(念佛)'이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말하자면 '관불'은 바로 '염불'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다. '관(觀)'은 '염(念)'이라는 말이다.

한편 〈관무량수경〉에서는, '관불'의 결과로서 부처를 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관불(觀佛)'은 '견불(見佛)'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세친(世親)이 지어서 담란(曇鸞)이 주석을 달았던 〈정토론(淨土論)〉과 〈논주(論註)〉에서는 정토의 아름다움과 모든 중생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신앙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면서, '관불(觀佛)'은 '신불(信佛)'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라고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왜 '관불'이 '염불'이며, '견불'이며, '신불'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며 음미해야만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여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모든 중생이 여래의 덕상(德相)을 구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중생이 모르기 때문에 법을 설하여 가르침을 펴게 되는 필연적인 여래의 불가사의묘용(不可思議妙用)에 대한 요청이 불가피하다. 일체중생이 모두 여래의 덕상(德相)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그대로의 상태로 곧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유마경(維摩經)〉을 비롯한 많은 대승경전에서 '사바즉정토(娑婆卽淨土)'·'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여(眞如)의 세계는 중생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며, 중생은 곧 각자(覺者=佛陀)인 것이다. 동시에 중생은 중생인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교법(敎法)에 있는 것이지 중생의 지해(知解)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래의 금구성언(金口聖言)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며, 성불에 대한 '지해(知解)'는 모두 '교법(敎法)에 의거해서 성립되는 분별지(分別智)'이기 때문에 모두 '기사(棄捨)'하여야 하며 오직 여래의 무한한 자비에 포용(包容)되는 것만이 곧 성불의 길인 것이다.

설법에 의해서 모든 중생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체중생의 요청이며, 그 요청을 무시해서 붓다가 '보리수 밑에서 도를 이루는 것(樹下成道)'만으로 끝나 버린다면 그것은 소승의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 독각(獨覺,Pratyeka-buddha)인 것이다.

붓다가 소승의 범주를 벗어나서 녹야원으로 나아가게 된 전기가 '발보리심(發菩提心)'이며 설법으로까지 이끈 힘이 '본원(本願)'이며 '보살행(菩薩行)'인 것이다. 이 '발보리심'→'보살행'으로 연결되는 방정식이 바로 불교의 시원(始源)이며,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기점(起點)이 되는 것이다.

우리 불자(佛子)들이 '관(觀)'해야 할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부처님이라야 하고, 중생의 '관불(觀佛)'은 곧 '염불(念佛)'이라야 하고, 견불(見佛)'이라야 하고, '신불(信佛)'이라야 하는 것이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16)

말(馬)의 웃음 (1)

깨달음에 속성과정 있나

'인스턴트 禪' 수행 빗나가기 쉬워

인내가 삶의 일부될때 정신 성숙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참을성'은 물질주의를 숭상하는 현대사회에서 별로 대단찮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는 온갖 인스턴트 제품이 범람하는 바람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로 그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이 매우 약해져서 혹시라도 구하는 것을 곧바로 못 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단박에 심란해져서 "세상 살맛없어" 라고 투덜대거나 성을 내곤합니다.

하도 이런 불평소리를 많이 듣다보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불평거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싶을 지경이다. 그렇지만 가령 파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 어쩌겠습니까, 기다리며 참아내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좌선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몸 속에서 고통스런 느낌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없게 그 고통을 면해보려 버둥대고 있는지 한 번 관찰해 보아야 한다. 열이 나거나 병이 들었을 때도 그 몸의 불편이나 고통을 얼마나 속상해하고, 조급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 쓰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이렇듯 버둥대고 속상해 한다면 정신적 발전을 기약해 볼 틈이 없다. 그러니 이런 때야말로 참을성이라는 덕목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행길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빗나가게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스턴트 선(禪)을 공부할까보다' '이렇게 기약없이 불교에 매달려봐야 괴롭기만 할 뿐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정말이지 지금 당장 빨리 깨쳐버리고 싶단 말이야' '이처럼 지긋지긋한 일들을 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일 아닌가' '시간만 허비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나' '어디 시원하게 속성과정을 밟든가 기막히게 효과적인 알약이나 기계장치를 써서라도 금방 깨닫게 되는 길은 없을까?' 등.

미국에서 엘.에스.디(LSD) 환각제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약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속성법이라고 떠들어댔지요. "이 약 한 알만 삼켜보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훤하게 알게 될 테니까요! 구태여 번거롭게 승려가 되어 절에서 눌러앉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한 알만 복용하면 단박에 깨달을 테니까요. 약사나 마약 취급자만 찾으면 됩니다. 달리 애쓰고 있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몇 번 엘.에스.디를 먹고 환각상태를 맛본 연후에야 사람들은 깨달은 것 같던 기분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 참을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참을성'이 우리의 삶 일부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태국에서는 특히 동북부에 있는 숲 속 사원에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성을 기를 수 있는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곳 생활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온갖 불쾌한 육체적 경험부터 견뎌내야 한다.

오종욱기자

과학산책

카시미르 효과

양자진공의 실험적 증명

두 금속판 마주보게 놓으면 밀도차이로 서로 끌어당겨

지난 호에 우리는 고전역학에서와는 달리 양자역학에서의 진공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입자와 그 반입자의 자발적 창조와 소멸 등의 활동에 진공에너지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데 우리는 이 같은 양자장(입자의 창조와 소멸이 일어나는 장)의 변화를 요동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웠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고 활동이 없는 그 무엇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이 가득하고 매우 활동적인 그 무엇이다. 이러한 다소 믿기 어려운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물리학은 이론이 실험에 의해 뒷받침 받을 때에만 그 이론을 공인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양자 진공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도 간접적인 방법은 있다. 이 같은 양자 요동이 존재한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두 개의 입자 사이의 전자기장은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한 고전적 장 해석으로는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측정되는 전자기장은 양자 요동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장의 평균인데 각 장들은 주어진 요동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가중치가 매겨진다. 대부분의 현실적인 경우에는 이 양자 요동의 효과는 상당히 작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거시적인 두 물체 사이의 전자기장을 측정하면 고전 이론에 의해 예견되는 값을 얻게 된다. 그러나 고에너지 입자 충돌 실험에서는 양자역학적 요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를 고려되지 않으면 실험치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하나 카시미르 효과(Casimir Effect)라는 것이 있다. 1948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 카시미르(Hendrick Casimir Casimir)는 두 개의 금속판을 진공 중에 서로 마주 보도록 가까이 놓으면 대단히 작지만 금속판은 서로를 끌어당길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이 끌어당김의 정도를 계산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진공 중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의 파장 중에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에 맞는 파장들은 그 판 사이에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이는 마치 손가락을 띄어 구멍을 열거나 손가락을 대어 구멍을 닫거나 하여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높이가 다른 소리를 내는 피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손가락을 특정 구멍에 갖다대어 특정 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피리의 구멍에 따라 정해진 관의 길이로 인해 특정 파만 피리 내부에서 진동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금속판 사이의 특정 거리는 진공 중에 있는 특정 파만을 판 사이에 담게 한다. 이렇게 되면 판사이에 있는 에너지는 판 밖의 에너지 보다 밀도가 적아지기 때문에 판 사이의 거리가 좁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즉 진공상태에서 판 사이와 판 바깥의 에너지의 밀도 차이로 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학에 있던 라모레아욱스(Lamoreaux)는 카시미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정교한 실험을 했다. 라모레아욱스는 도금된 수정 표면을 사용하여 실험을 했는데 이 판에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힘이 발생했다. 이 숫자는 지구 중력장 속에서 한 개의 적혈구의 무게에 해당한다. 실험은 카시미르의 예견과 5%내의 오차를 보였다.

그러나 카시미르 효과를 양자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에 쓰인 금속판을 형성하는 원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반델발스(van der Waals) 힘에 의한 효과로 계산하여 위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어떤 이론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두 이론 다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졌으면서도 코끼리의 전체모습을 단정하는 것처럼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실험적 한계, 인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고정되게 보는 습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